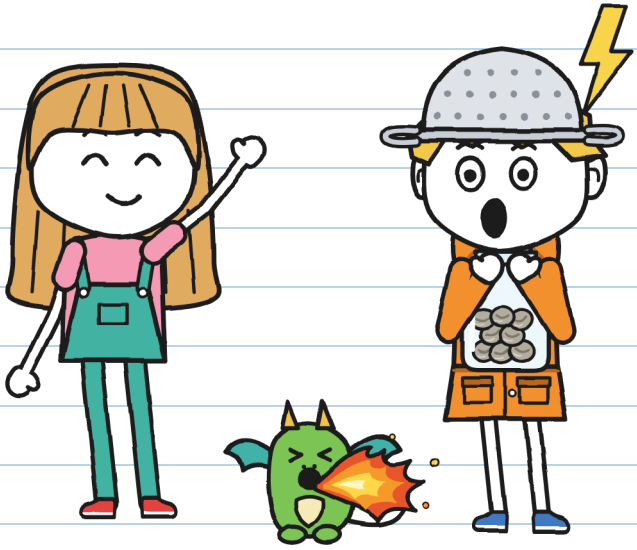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2

#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구너의 공책)

사이즈 S
초급 · 중+

# 불가능 배달 · 2
##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S · 초급 · 7+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천둥은 없다. —J.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너는 따라 하지 마. 몇 쪽에 걸쳐 이어지면 어디부터와 어디까지라고 적혀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76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폭풍 사냥꾼(그런 셈이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홀리타. 번개와 천둥 사이의 초를 센다.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부스러기. 아기 용. 구니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뭐든.



토요.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플로라 아줌마. 운하길 9번지의 정원사. 돌멩이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네 옆 용의 집에서 용을 돌본다. 부스러기는 아줌마와 함께 산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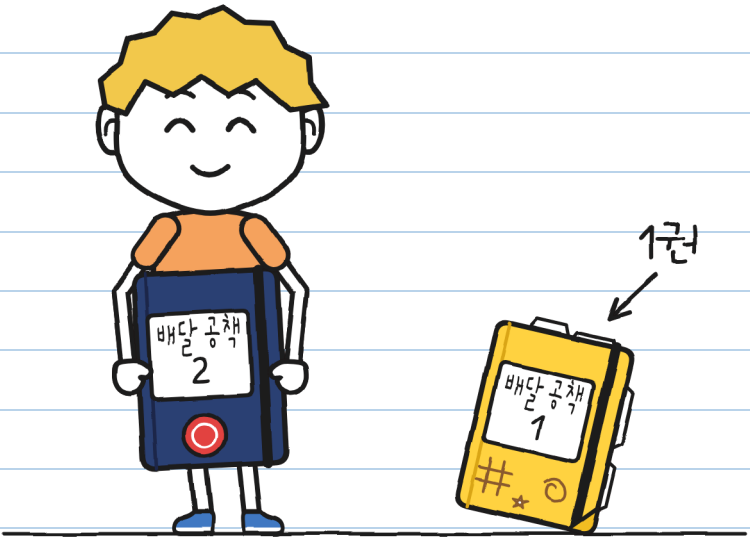



R.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 배달 공책 2
# 주인 : 구니

공식.

공식!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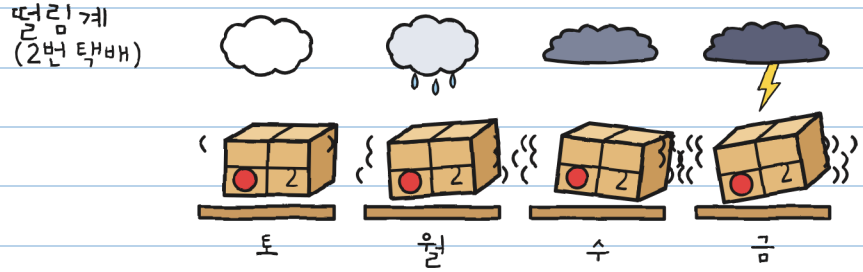

공책 1권은 끝났다. 꽉 찼다. 이건 가게 주인 마라 아줌마가 줬다. 가게 도장이 찍혀 있다. 공식 공책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된다고 한다. 두고 보자.

제1장

# 폭풍 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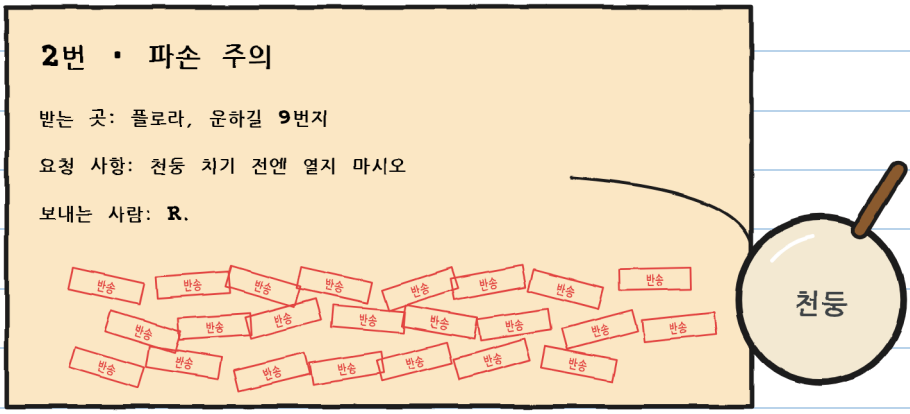
마라아줌마 가게에 택배가 하나 있다. 덜덜 떤다.
날마다 조금씩 더 떤다.
나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훌리타와 내가 마지막으로 배달한 택배는 알이었다.
이제 이름은 부스러기다. 날개가 있고,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우리 집 맞은편 가게에는 돌아온 택배가 열아홉 개 남아
있다. 하나는 아주 마음이 급하다.




무서워서가 아니야. 폭풍이 와. 토요일 저녁 6시에. 일기예보를 여섯 번 봤어. —J.

돌아온 택배는 언제나 돌아온다. 받는 사람은 라벨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해야 한다. 훌리타의 초록색 매직펜 같은 거다. 안 하면 해 뜰 때 선반으로 날아간다. 전부 같은 사람이 보낸다. R.이다.




2번 택배에는 '반송'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었다.

스물셋. 두 번 세어 봤어. —J.

"내가 스물세 번 배달했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 한 건 한 번도 없었어."

토요일 10시, 마라 아줌마가 2번 택배를 들고 우리를 기다렸다. 토뇨도 있었다. 토요일마다 우리 셋은 벌을 받는다. 1번 택배를 허락 없이 배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게 일을 돕는다.

"이건 말이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너희가 배달해. 오늘 오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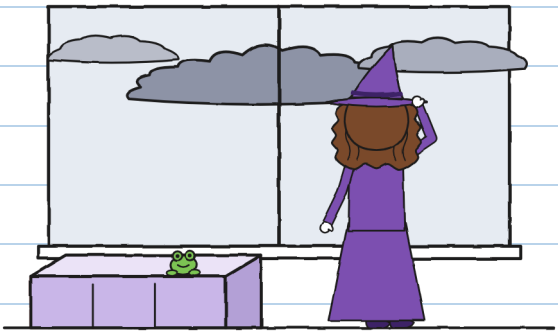



훌리타가 아주 높이 뛰었다. '남은 택배 19' 팻말에 닿을 뻔했다.

마라 아줌마가 조건을 세 가지 말했다.
손가락으로 세었다:

1. 5시에 출발해,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플로라 아줌마 집에 있어.
2. 너희 가족은 알고 있어. 플로라 아줌마도.
3. 라벨에 쓰인 규칙: 천둥 치기 전에는 열지 마. 머리 위 천둥만 돼. 멀리 있는 건 안 돼.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진열창 밖을 보았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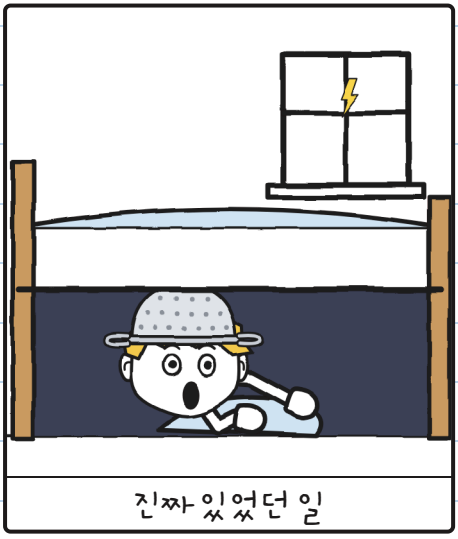
무슨 일? —J.

그때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폭풍 좋아해?"

그래서 뻔한 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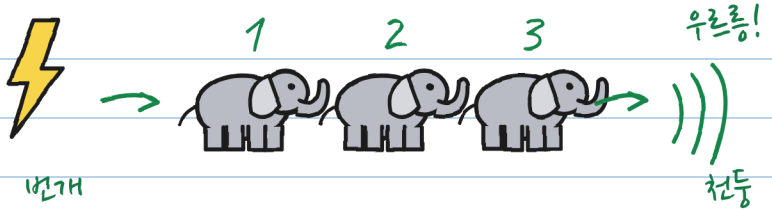
"엄청 좋아해. 다른 동네에서 전문 폭풍 사냥꾼이었어."




침대 밑 전문가. —J.

훌리타가 폭풍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내 공책에다. 늘 그렇듯 허락도 없이: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셋...

코끼리 4마리 = 4초

코끼리 3마리 = 3킬로미터 (대충)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게 라벨에 쓰인 천둥이야.
멀리서 치는 천둥은 택배를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

---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안전한 곳으로!

아는 건 덜 무서워. —J.

나는 필요 없었다. 폭풍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 두었다.

토뇨가 내 어깨 너머로 라벨을 읽었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토뇨는 가방의 작은 글씨를 보여 주었다.
"아직 폭풍은 안 쳤잖아." 훌리타가 말했다.
토뇨는 다시 살펴보았다. '아직'이라는 말은 없었다.




작은 글씨가 너무 작았어. —J.

그래서 토뇨도 같이 갔다.
5시에 나는 비옷을 가지러 집에 건너갔다.
"주황색 비옷 입어." 엄마가 문가에서 말했다. "정말 가니? 넌 천둥 칠 때…"
"엄마, 다녀올게!"

넌 천둥이 칠 때면… '뭐?! —J.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다. 밤에는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들어 올린다.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졌다. 다리 한가운데서 훌리타는 물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주 진지하게. 운하와 훌리타는 사이가 안 좋다.




아주 멀리서 하늘이 번쩍했다. 훌리타는 코끼리를 서른 마리 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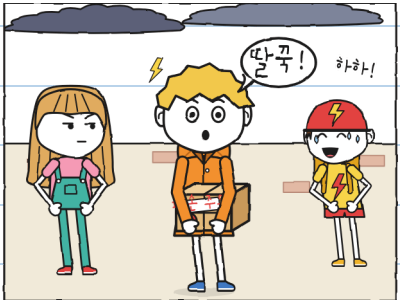
우르릉.

"저 번개는 1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6시에 온댔어."

"천둥이 쳤다!" 토뇨가 말했다. "이제 열어?"

"저건 택배를 여는 천둥이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라벨의 천둥은 번개와 동시에 쳐. 코끼리 0마리.
하지만 소리가 들리잖아.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운하길까지 달렸다.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척했다.

"방금 딸꾹질이야?" 훌리타가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딸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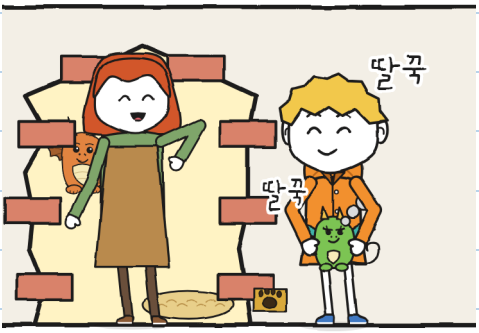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그랬다. 천둥이 칠 때만. 천둥이 칠 때마다
딸꾹질이 줄줄이 나온다. 3초에 한 번씩. 폭풍이 머리
위에 있으면 멈추지 않는다. 무서운 게 아니다. 내 몸이
혼자 하는 거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베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안고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부스러기는 나와 산책한다.

"오늘은 플로라네 집까지만이야. 부스러기에겐 첫 폭풍이거든."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구니, 부스러기는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해. 네가 느끼는 것까지. 무서워하면 잡아당기지 마. 꽉 붙잡으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담장을 세 번 두드려. 그러면 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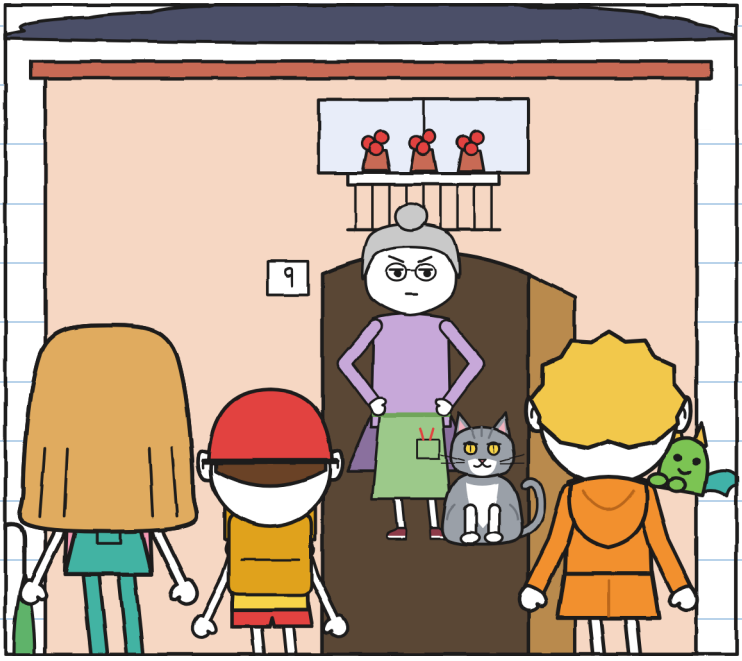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폭풍이 엄청 좋거든요."




멀리서 천둥이 쳤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났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지지난 토요일에 아줌마는 그 발코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용의 집 문을 찾고 있었다. 그 문은 벽처럼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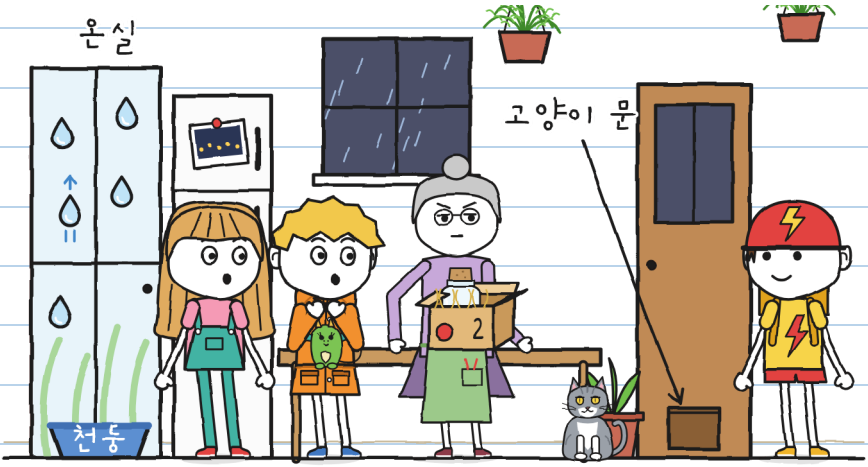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가 문을 열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틈도 없었다. 상자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부스러기를 보았다.

"베라네 아기 용이구나. 내 고사리를 태우지 않게 해다오." 아줌마가 말했다. "들어오렴, 비가 온단다. 미리 말해 두는데,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제2장

# 천둥!

플로라 아줌마네 부엌은 식물로 가득하다. 안쪽 유리문은 온실로 이어진다. 고양이 문이 달린 뒤쪽 문은 마당으로 이어진다. 토요는 비 때문에 자전거를 복도에 들여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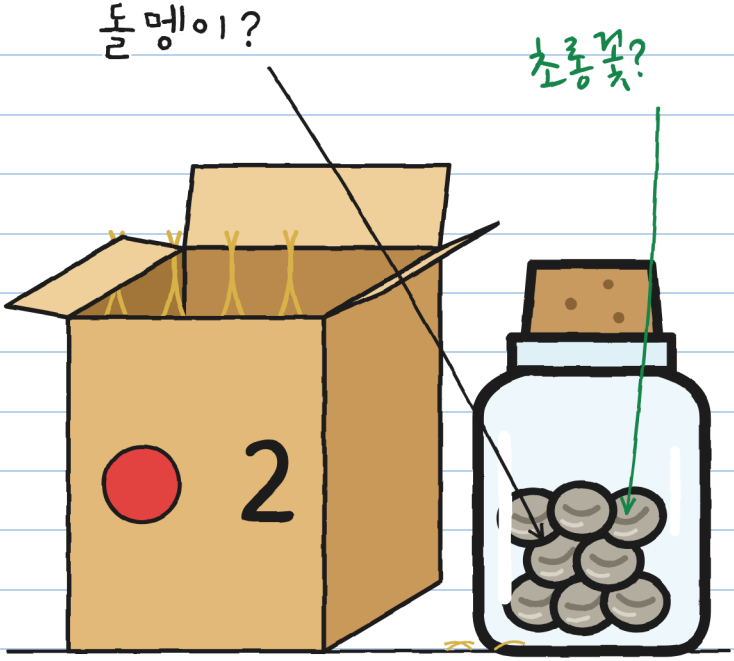

온실 유리에는 빗방울이 그려져 있었다. 아래로 안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다.

"R.이 만든 유리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내가 원할 때만 비가 들어와. 번개는 절대 안 들어오고."

플로라 아줌마는 상자를 식탁에 놓았다. 묻지도 않고 열었다. 안에는 유리병이 있었다. 병 속에 회색 알갱이가 여덟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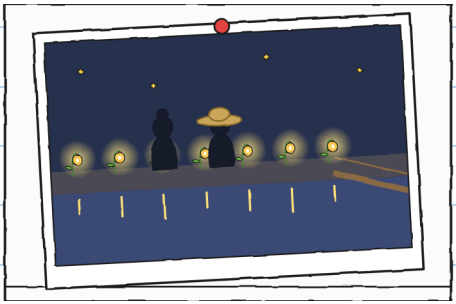
"천둥 치기 전엔 열면 안 돼요!" 훌리타가 소리쳤다.

"난 상자를 열었지, 병을 연 게 아니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뭐가 들었는지는 알아. R.이 초롱꽃을 약속해 놓고 돌멩이를 보내는 거야."




"초롱꽃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낡은 사진을 보여 주었다. 밤의 운하 산책로였다. 물가에 작은 불빛들이 있었다.



"식물이란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번개의 빛을 품었다가 밤새도록 빛을 내지."
"R.이 심었어요?"
"R.은 깨어난 씨앗을 가져왔고, 난 흙을 대줬어. 잠든 씨앗은 한 번도 못 봤단다."
"그럼 초롱꽃은요?"
"꺼졌어. R.이 오지 않게 됐지.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걸 보내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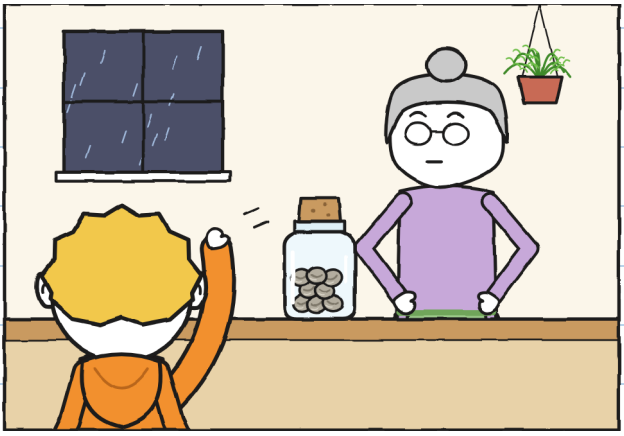
그래서 운하가 그렇게 어둡다. 그래서 운하를 가로지르는 널빤지, 널다리가 무섭다.

무서웠지. 난 어둠 속에서 건넜는걸. —J.

"R.은 약속은 지켜."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늦게라도 지키지. 이것만 빼고. 이 병이 스물세 번
왔어. 스물세 번 다 돌멩이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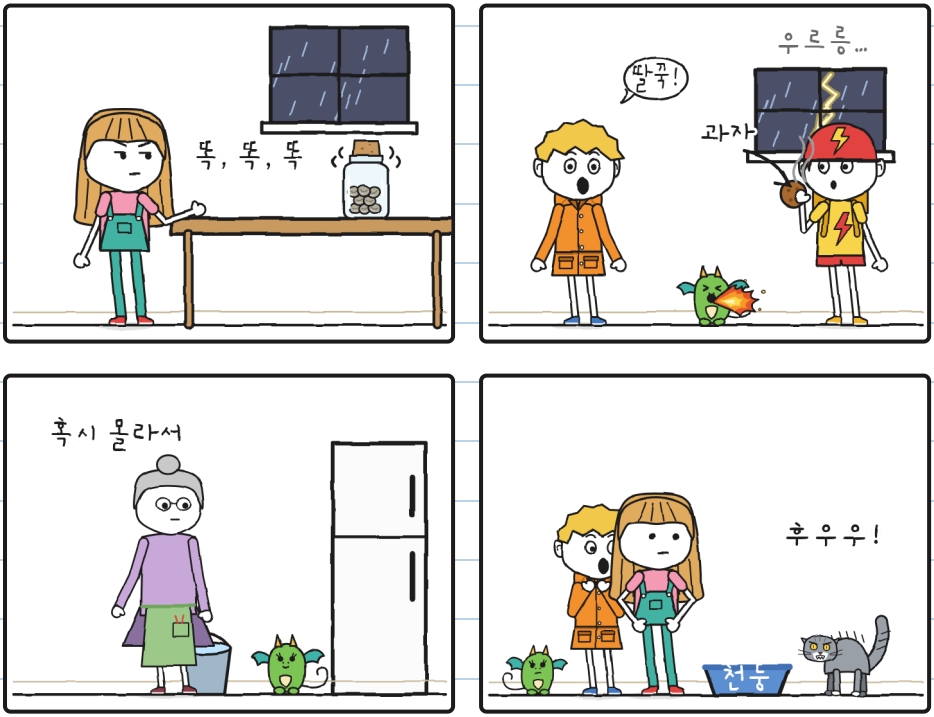
나는 라벨을 떠올렸다.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천둥이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 본 적은 있어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내 질문이 바보 같다는
듯 쳐다보았다.
"난 누구도 안 기다려." 아줌마가
말했다. "천둥이라도."



플로라 아줌마의 고양이 이름은 천둥이다. 밥그릇에 이름이 적혀 있다. 구름처럼 회색이다. 그리고 진짜 천둥처럼 그르렁거린다.

우리는 부엌에서 폭풍을 기다렸다.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천둥에서 제일 나쁜 건 기다리는 거야. —J.

병이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냈다. 점점 더 크게.
훌리타가 셌다. '코끼리 열두 마리.' 그다음엔
'아홉 마리.'
식탁 밑에서 훌리타의 발이 들썩거렸다.

"그러다 바닥에 구멍 나겠다." 내가 말했다.
"세고 있잖아."
"네 발이 엄청 빨리 세고 있어."
그때 부스러기가 작은 불꽃을 또 내뿜었다. 천둥은
고양이 문으로 쏜살같이 마당으로 달아났다. 플로라
아줌마가 뒷문을 열고 소리쳤다:
"천둥아아아!"



그리고 훌리타가 병을 열었다.




"천둥이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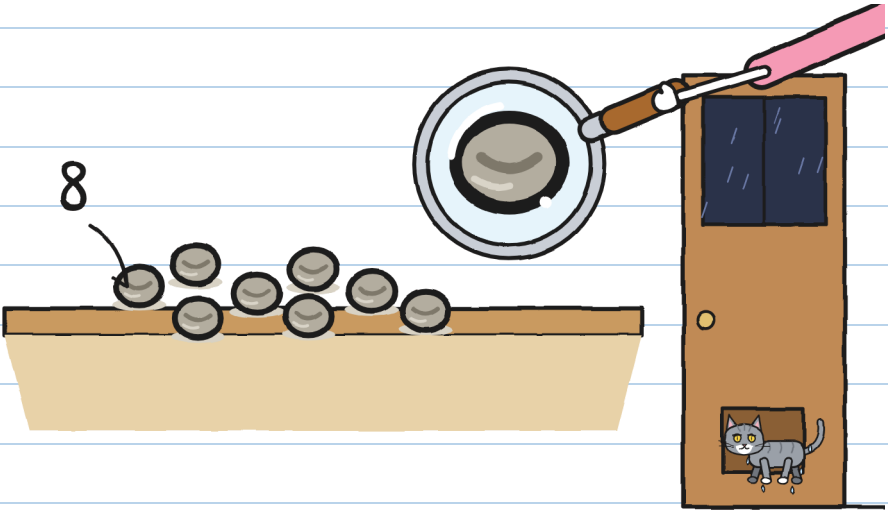
천둥은 안 쳤다. 플로라 아줌마가 소리친 거였다.
천둥은 고양이다.

나는 천둥! '소리를 들었어. 기다리던 말이었지. 고양이라고는 아무도 안 말해 줬어. —J.

이건 17쪽에 적어 두었다.

그 쪽은 나중에 읽었어. —J.

병을 열자 소리가 멎었다. 안에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뿐이었다. 차갑고 가만히 있었다. 훌리타는 알갱이들을 식탁에 쏟았다. 돋보기로 들여다보았다. "줄이 하나씩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감은 눈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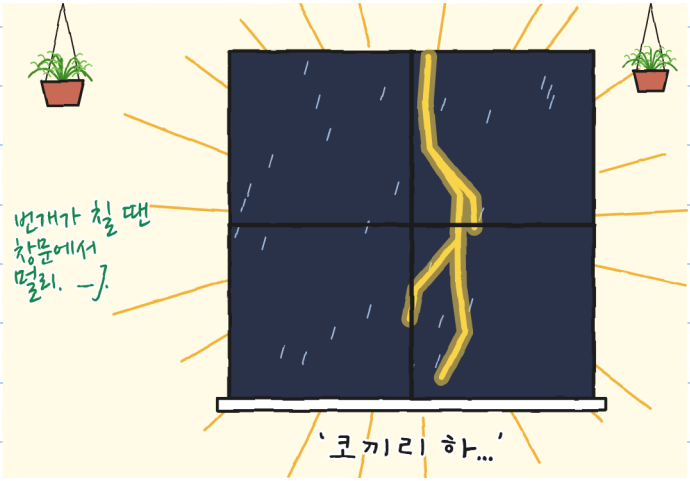

천둥이 고양이 문으로 돌아왔다. 흠뻑 젖어서. 플로라 아줌마는 문을 닫았다.
"돌멩이네. 늘 그렇듯이."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훌리타를 쳐다보았다.

훌리타의 얼굴이 티셔츠와 똑같은 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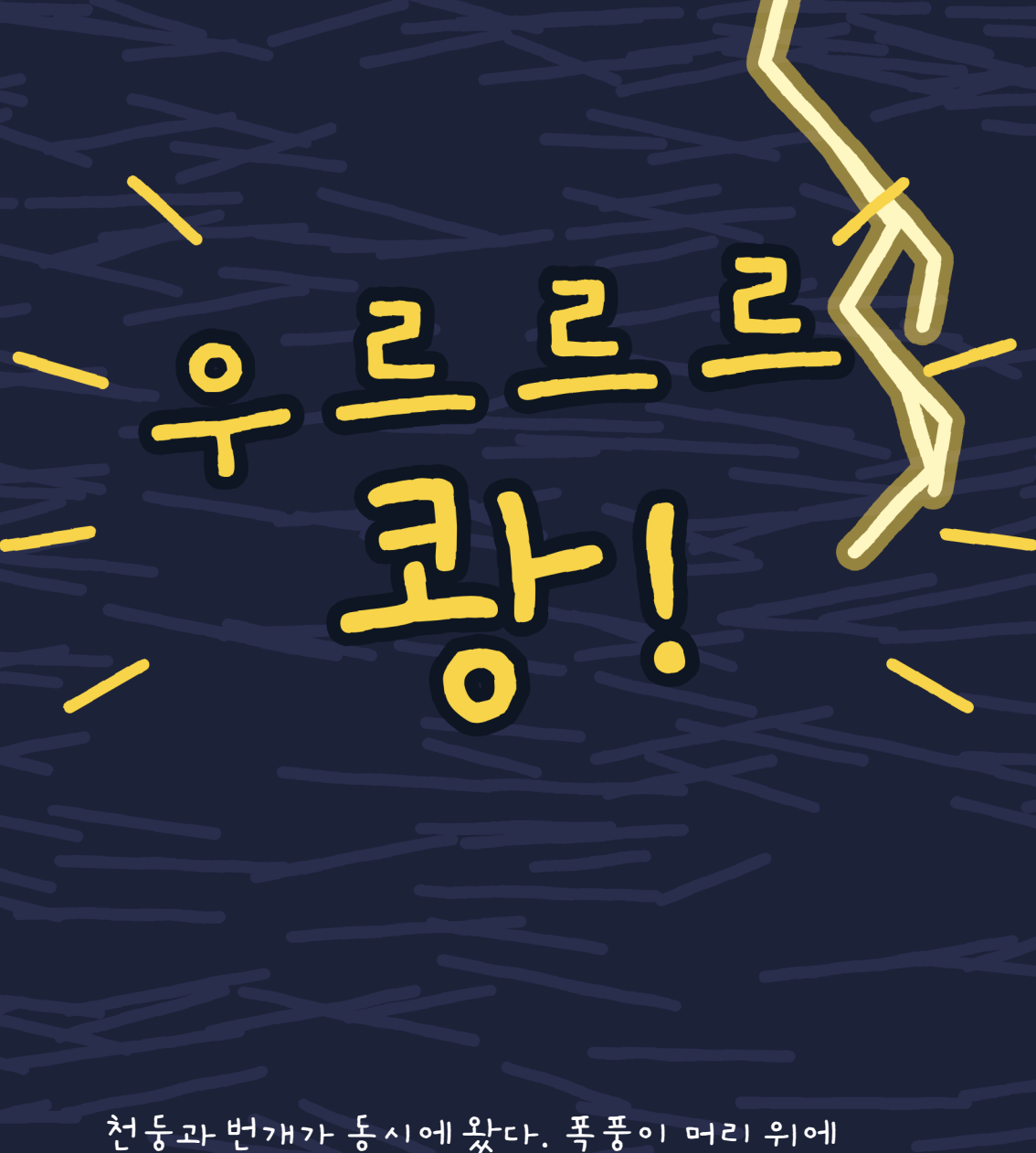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이에요. 그래서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천둥이 깨워 줄지도 몰라요. 유리창이 덜덜 떨릴 만큼 큰 천둥이요."

플로라 아줌마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씨앗이라면 증명해 보라지."

밖은 거의 밤이었다. 저녁 6시였다.
번개. 훌리타가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가 왔다.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왔다. 폭풍이 머리 위에 있었다. 식탁과 컵과 유리창이 떨렸다.

그리고 불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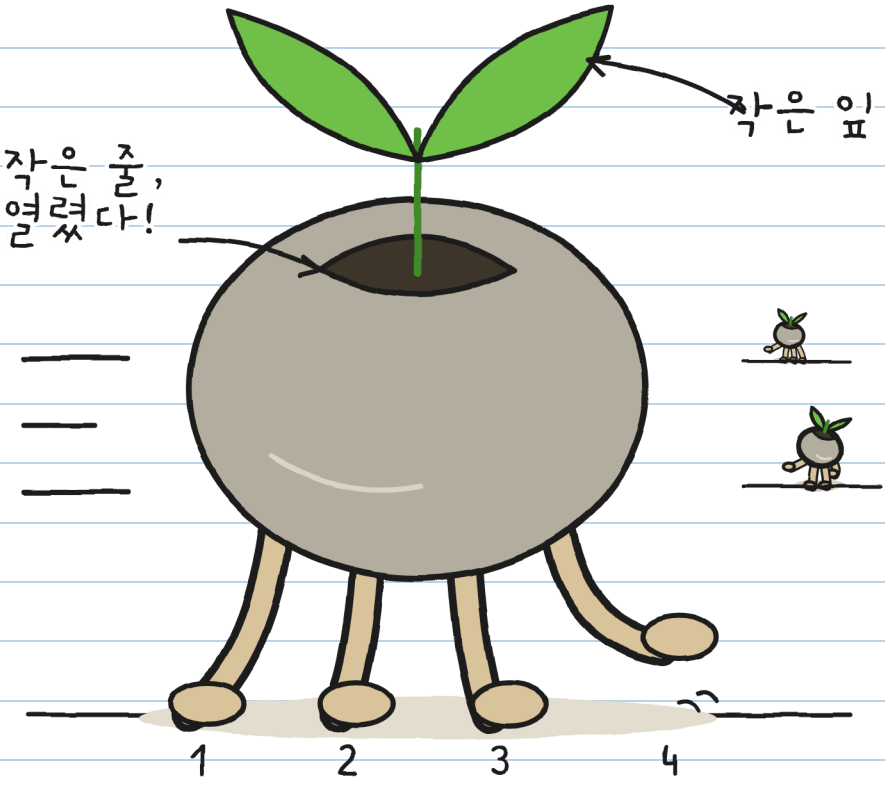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불꽃이 확 뿜어졌다. 1초 동안 부엌이 통째로 보였다.

식탁이 비어 있었다.



# 초롱꽃 씨앗
(깨어남)




뿌리 다리 네 개

돌멩이에 다리가 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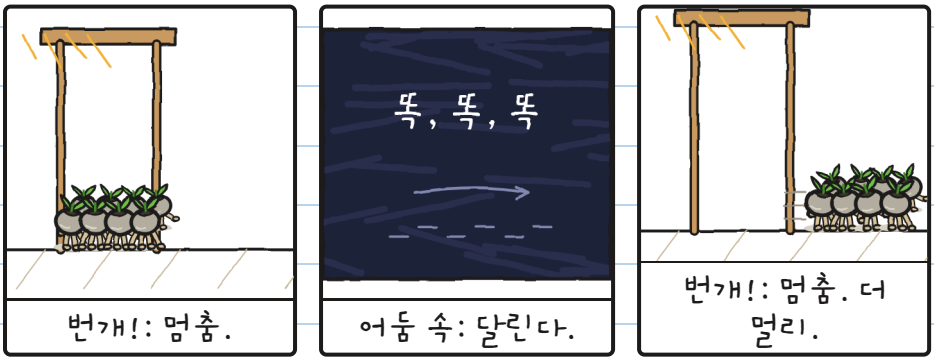
그리고 조급함. -J.

제3장

# 안 보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빗소리 같은 게 들렸다. 똑, 똑, 똑. 또 번개가 쳤다. 씨앗들은 더 멀리 가 있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아주 가만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씨앗들은 빨리 달렸다. 하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멈췄다. 번개는 많이 쳤다. 나는 식탁 밑에서 보고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의 체를 머리에 썼다. 우리 집에서는 천둥이 치면 하나 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야. 씨앗이랑. —J.

플로라 아줌마가 손전등으로 씨앗 하나를 비추었다.
씨앗이 멈췄다.
다른 씨앗을 비추었다. 첫 번째 씨앗이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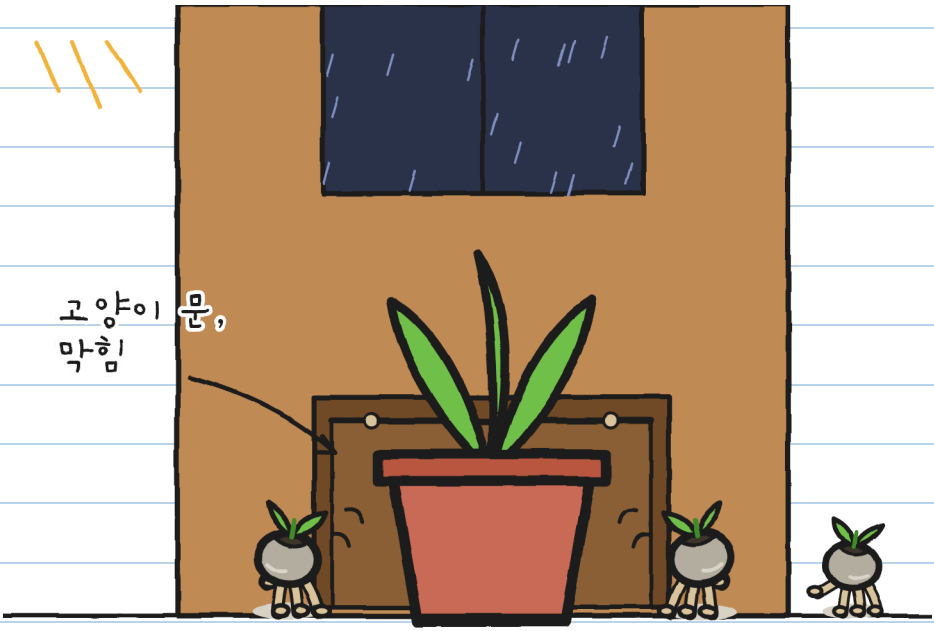
"씨앗이야! 깨어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외쳤다.



불빛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두 번째 씨앗이 달렸다.
"손전등이 하나 더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렴. 이것밖에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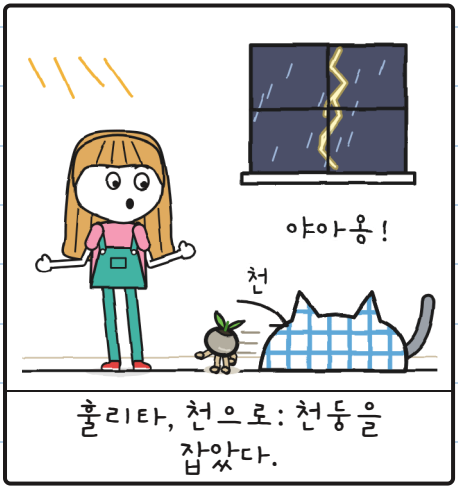
불빛이 있으면 가만히. 어두우면 달린다. 손전등
하나로는 모자랐다.

씨앗은 모두 고양이 문으로 갔다. 플로라 아줌마가 커다란 화분으로 문을 막았다.
"폭풍에 젖은 흙을 찾는 거야." 아줌마가 말했다.
"여기엔 수돗물 준 흙뿐이야. 바깥에는 흙이 거의 없어. 나가면 빗물이 운하로 쓸어 가 버려."




하지만 이제 씨앗들은 어둠 속에서 부엌 곳곳에 있었다. 부엌에는 숨을 곳이 백 군데나 된다.

우리는 별걸 다 해봤다:




훌리타, 천으로: 천둥을 잡았다.




토뇨, 맨손으로: 천둥이 토뇨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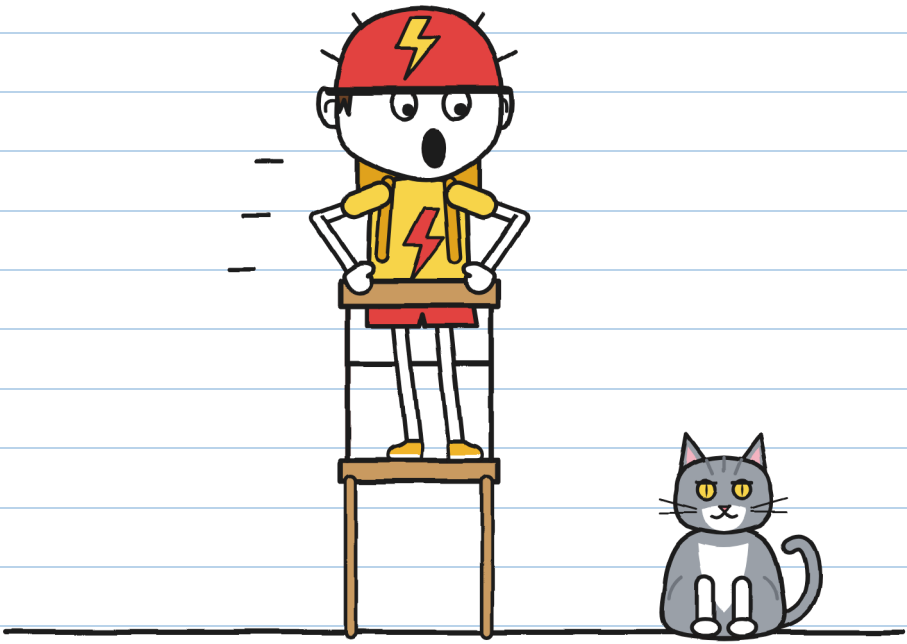

부스러기, 불꽃으로: 하나!




플로라아줌마, 손전등으로: 둘!

천둥도 씨앗을 잡으러 다녔다. 천둥은 어둠 속에서도 거의 다 보인다. 우리는 못 본다.

토쇼는 폭풍이 안 무섭다. 고양이가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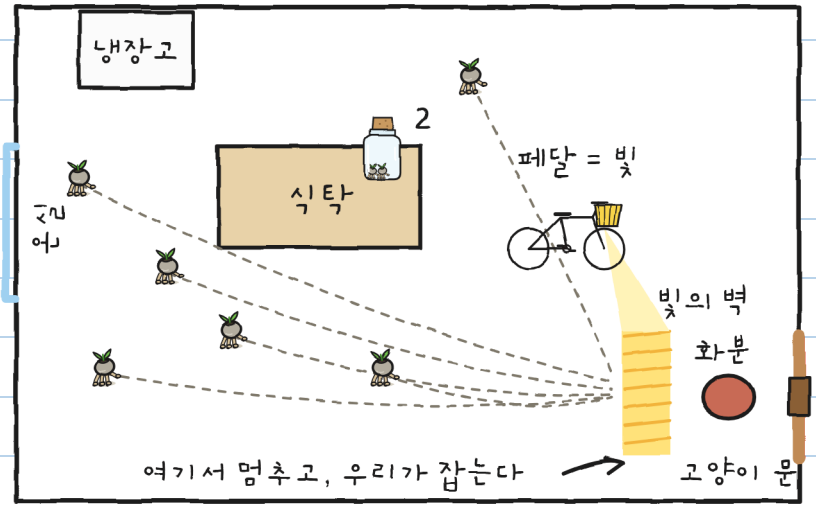


"고양이가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이야!"
"더 나빠!"

무서운 건 둘 이름은 하나. —J.

나는 여전히 체를 쓴 채 식탁 밑에 있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보았다. 씨앗들은 늘 고양이 문으로 돌아갔다. 화분이 길을 막고 있었다. 씨앗들은 화분을 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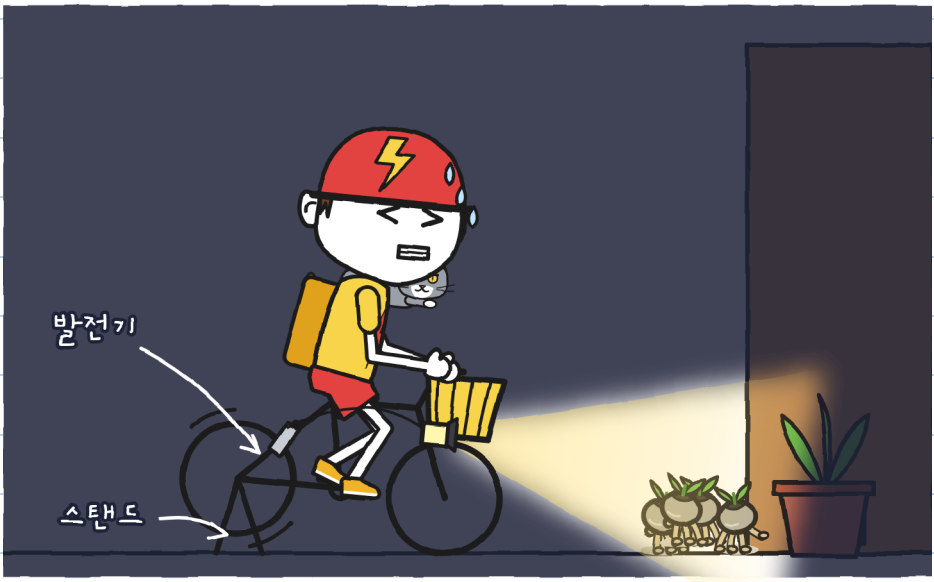
전부. 같은 곳으로.
나는 약도를 그렸다.




"토쇼, 네 자전거 전조등은 페달을 밟으면 켜지니?"
"당연하지."
"그럼 오늘은 빛을 배달하는 거야."

우리는 자전거를 스탠드에 세웠다. 전조등이 고양이 문을 비췄다. 번개배송 자전거의 불은 발전기로 켠다. 바퀴가 돌면 불이 켜진다. 그리고 토뇨가 페달을 밟았다.

토뇨는 그렇게 열심히 밟은 적이 없었다. 천둥이 위로 뛰어올랐을 때는 더욱.




드디어 번개배송이 쓸모가 있네. —J.

씨앗들은 빛에 닿으면 멈췄다. 우리는 한 개씩 잡았다.
병 속으로. 셋. 넷.

천둥이 입으로 씨앗을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손가락 두 개로 빼앗았다.
"다섯!" 아줌마가 말했다.




여섯.

플로라 아줌마가 병뚜껑을 닫았다. 한 개도 못
도망가게. 그러고는 우리를 도우려고 쪼그려 앉았다.
그때 천둥이 식탁으로 뛰어올라 병을 쓰러뜨렸다.




토뇨는 병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번개배송." 토뇨가 말했다. "1초 안에 못 하면 공짜."

하지만 토뇨는 페달 밟기를 멈췄다. 불이 꺼졌다.
그러자 천둥이 고양이 문으로 뛰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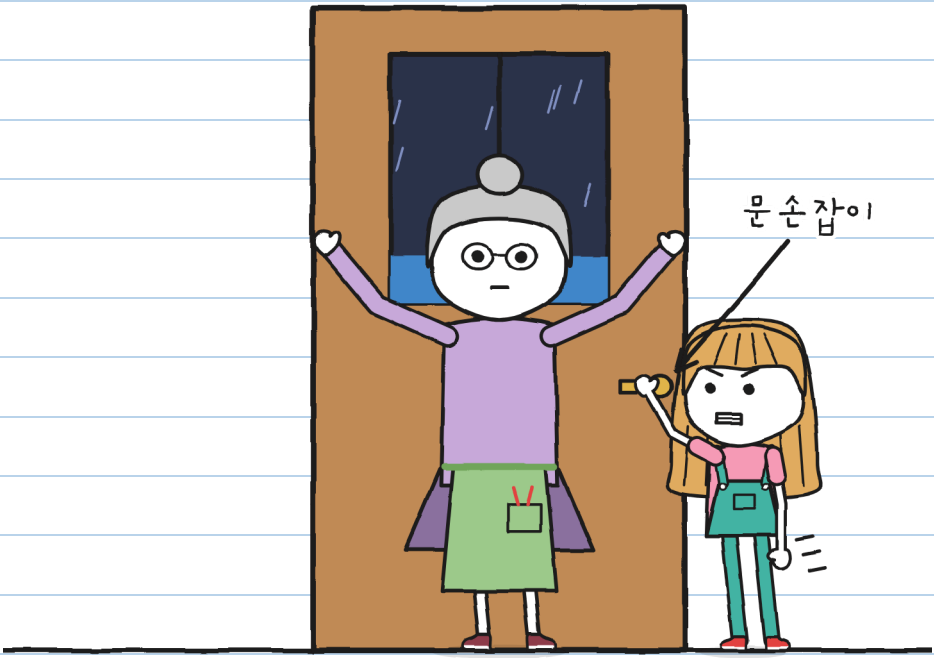
어둠 속에서: 똑, 똑, 똑. 천둥이 화분을 밀었다:
드르륵. 그러자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또 번개가 쳤다. 바닥에는 씨앗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여덟 번째 씨앗은 고양이 문으로 나갔다.

"제가 찾아올게요!" 훌리타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번개가 칠 때는 아무도 못 나가." 플로라 아줌마가 문 앞에서 말했다. 아주 진지하게.




훌리타는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놓지도 않았다.
잠시 뒤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흠뻑 젖은 천둥이었다. 여덟 번째 씨앗은 없었다.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우르릉.
"둘." 훌리타가 말했다. "아직 아주 가까워."

"그럼 이제 심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폭풍이 가기 전에. 어둠 속에서."
"저 안에서요?" 훌리타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유리 위로 올라가는 빗방울을 가리켰다.
"마법은 아직 걸려 있어. 번개는 밖에 있어."




그러고는 부스러기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부스러기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딸꾹질을 했다.

제4장

# 딸꾹

플로라 아줌마가 초롱꽃 심는 법을 설명했다. R.이 가르쳐 준 법이다. 나는 공식 글씨로 적었다:

## 초롱꽃 심는 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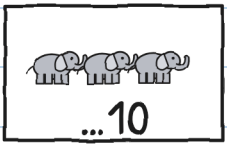
폭풍에 젖은 흙.
(수돗물 준 흙은 안 돼.)

2. 

흙 위에서 병 열기.
(먼저 열면 도망간다.)

3. 

전부 어둠 속에서: 씨앗들이 스스로 흙 속으로 들어간다.
(네가 묻으면 싹이 안 터.)

4. 


폭풍이 가기 전에:
코끼리가 열 마리를 넘으면,
다음 폭풍 때까지 심어지지 않는다.

깨우기: 코끼리 0마리. 심기: 열 마리까지. 열한 마리가 되면 다시 잠들어. —J.

플로라 아줌마가 크랭크를 돌렸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려 놓은 빗방울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진짜 비가 유리를 통과해 화단에 떨어졌다. 흙이 가득한 긴 탁자였다.

"전부 화단으로. 바닥에는 한 방울도 안 돼." 플로라 아줌마가 비에게 명령했다.




이 유리는 이야기 속에만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온실에 절대 가지 마(76쪽). —J.

"폭풍에 젖은 흙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이제 전부 어둠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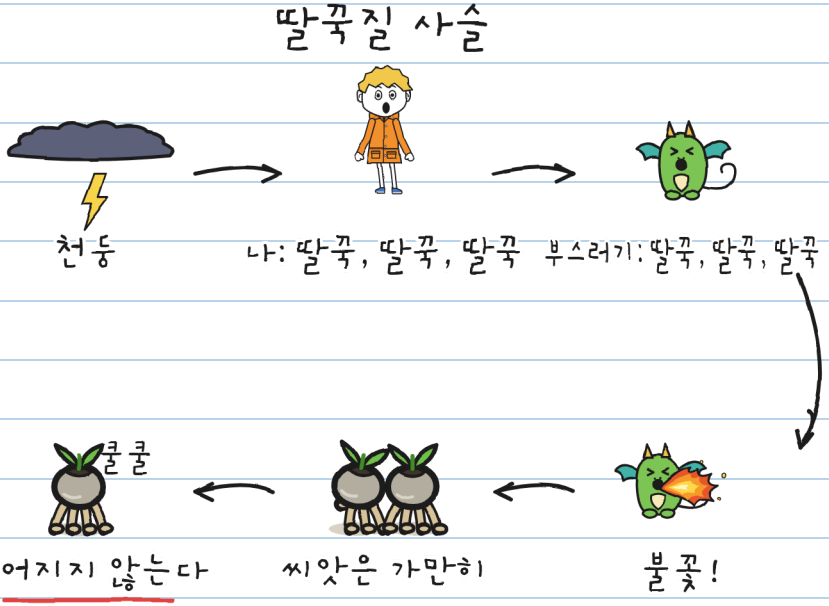
그런데 부스러기는 벌써 안에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의 발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아무도 못 봤다. 화단 아래 화분들 사이에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조심조심 끌어당겼다. 부스러기는 네 발로 화분을 꽉 붙잡았다. 베라 아줌마가 이미 우리한테 말했었다.




부엌에서 내가 딸꾹질을 하면 온실에서 부스러기가 물을 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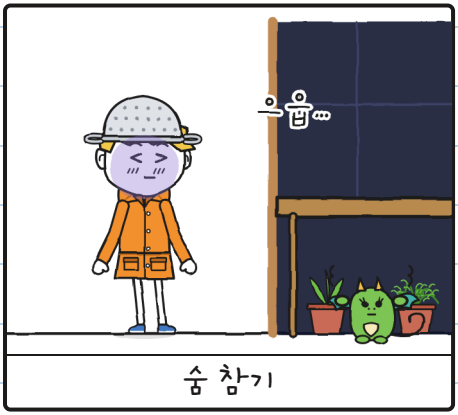
이해하려고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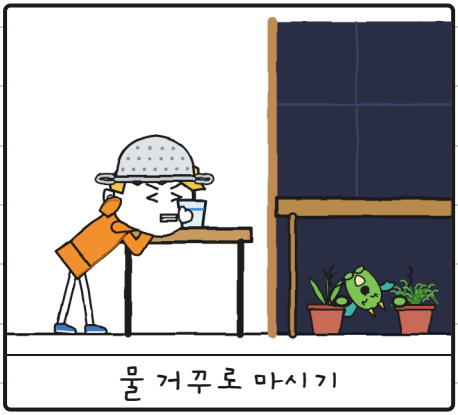

부엌에서는 딸꾹질이 도움이 됐다. 불꽃, 가만히 있는 씨앗, 잡힌 씨앗. 온실에서는 아니었다. 3초마다 불꽃이 터졌다. 씨앗이 심어지는 데 필요한 어둠이 한 번도 이어지지 않았다.

사슬을 끊어야 해. 제일 끊기 쉬운 부분은 너야. 사랑을 담아. —J.

딸꾹질 멈추는 방법을 전부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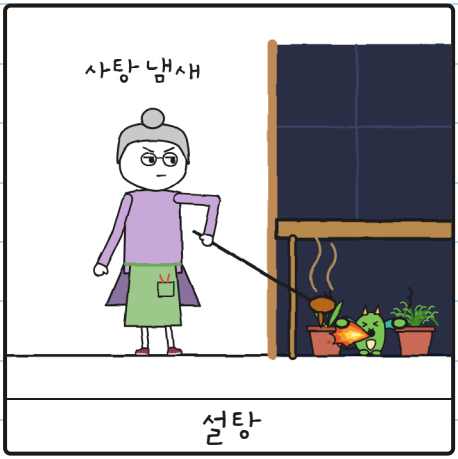

숨 참기



물 거꾸로 마시기




깜짝 놀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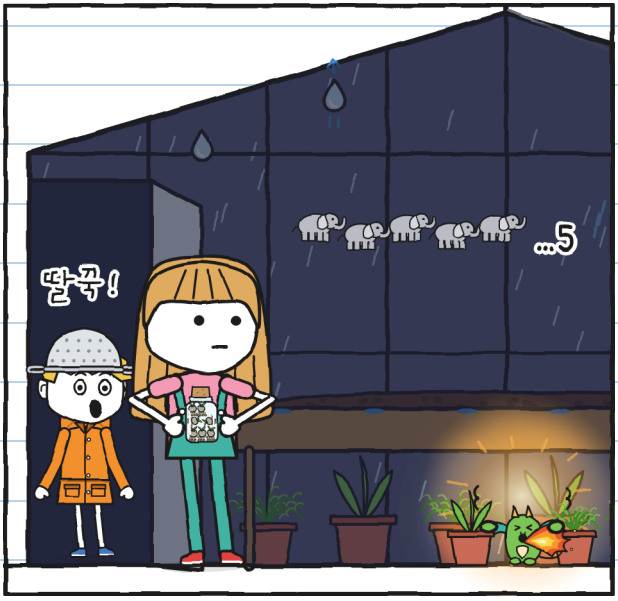

설탕

부스러기는 전부 따라 했다. 화분을 놓지 않은 채.

방법: 0개. 딸꾹질: 많이. —J.

"코끼리 넷. 다섯."
천둥이 울렸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씨앗 일곱 개가 병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열하나까지 세면 어떡해?" 내가 물었다.
훌리타는 씨앗들을 쳐다보았다.
"또 돌멩이가 되겠지."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부스러기는 네 무서움을 따라 하는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그럼 다른 걸 따라 하라고 해." 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딸꾹질을 했다.
"데리고 나오면?" 내가 물었다.
"꽉 붙잡고 안 나와. 봤잖아."
훌리타가 목소리를 낮췄다.
"먼저 네가 곁에 있어 줘."

나한테는 무서움을 없앨 방법이 없었다. 숨기는 계획만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더는 통하지 않았다:

천둥이 무섭다는 걸
들키지 않는 내 계획:

1. 엄청 좋아한다고 말하기.
2. ~~딸꾹질 안 하기~~ 딸꾹 딸꾹 딸꾹 딸꾹 딸꾹
3. ???

3번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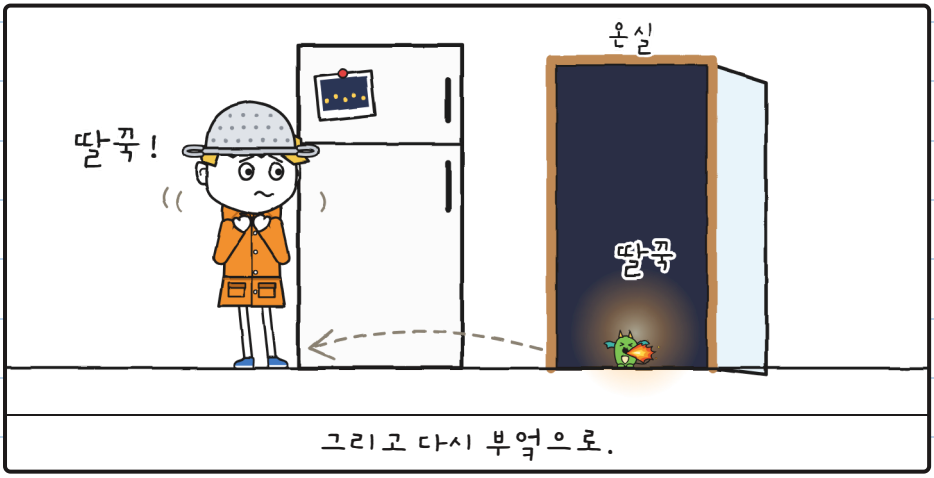
나는 해 보았다. 정말로.



한 발 안으로.




천둥 한 번.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천둥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곳은 온실이다.
동네 전체에서.

문가에서 유리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번개와 번개 사이에 지붕 훨씬 위로 보였다. 폭풍 속을 날고 있는 베라 아줌마의 용들. 용들은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을 때 날아오른다. 그래서 베라 아줌마는 우리와 같이 오지 않았다. 폭풍이 치면 용들을 지켜본다.



용들은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가자, 사냥꾼." 토뇨가 말했다.

농담을 기다렸다.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체를 벗어 플로라 아줌마에게 주었다. 아줌마는 체를 진짜 헬멧처럼 꼭 쥐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체는 번개를 못 막아. 무서움은 가끔 막아 주지. —J.

안에서는 빗소리가 유리를 두드리는 손가락 천 개 같았다. 나는 네발로 기어 화단 밑으로 들어갔다. 부스러기가 거기 있었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나처럼 떨고 있었다.




우르릉!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불꽃이 우리 둘을 환하게 비췄다.

우리는 화단 밑에 숨은 폭풍 사냥꾼 둘이었다.

문가에서 훌리타가 나직하게 말했다. 웃지 않고:



"내가 같이 셀게."

제5장

# 내가 같이 셀게

그리고 우리는 셌다. 훌리타는 문가에서. 나는 화단 밑에서, 비옷에 기대어 떠는 부스러기와 함께.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르릉.

"여섯이면 2킬로미터쯤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우리는 계속 안전한 데 있자."



코끼리 여섯 마리를 다 셌다. 무서움은 그대로 있었다.

폭풍이 엄청 좋다고 이미 말했다. 두
번이나. 소용없었다.
부스러기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사실대로 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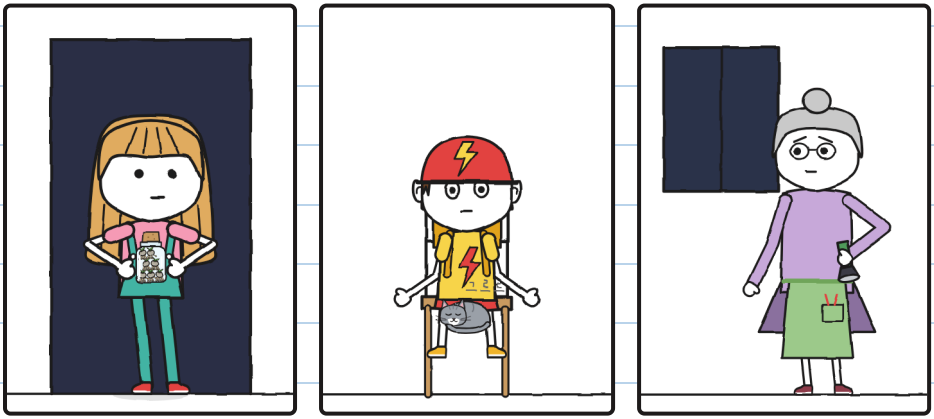


"난 천둥이 무서워."

"알고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6쪽에 그려 놨잖아. 네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난 고양이가 무서워." 토뇨가 말했다. 천둥이 토뇨의 무릎에서 자고 있었다. 토뇨는 움직일 엄두를 못 냈다.

"난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게 무섭단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래서 병을 바로 열었지."



난 널다리가 무서워. 그건 다들 알잖아. —J.

아무도 웃지 않았다. 비는 똑같이 내렸다. 하지만 화단 밑에서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부스러기도 천천히 숨을 쉬었다.




번개. 우리는 같이 아홉까지 셌다. 우르릉.

그리고 나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그 천둥에도, 다음 천둥에도.

"지금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속삭였다.

훌리타는 어둠 속에서 발끝으로 걸어 들어갔다.
젖은 흙 위에 열린 병을 놓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문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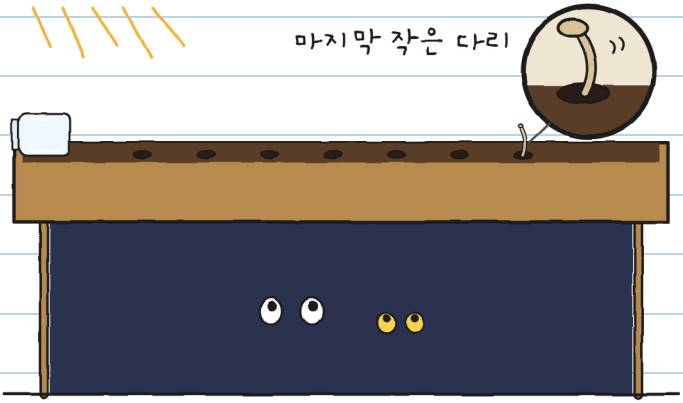



똑, 똑, 똑. 어둠 속에서 병 밖으로 뭔가 나오고 있었다.

아주 멀리서 번개. 우리는 입술만 움직여 열까지 셌다. 우르릉.

열. 마지막으로 셀 수 있는 수.

다음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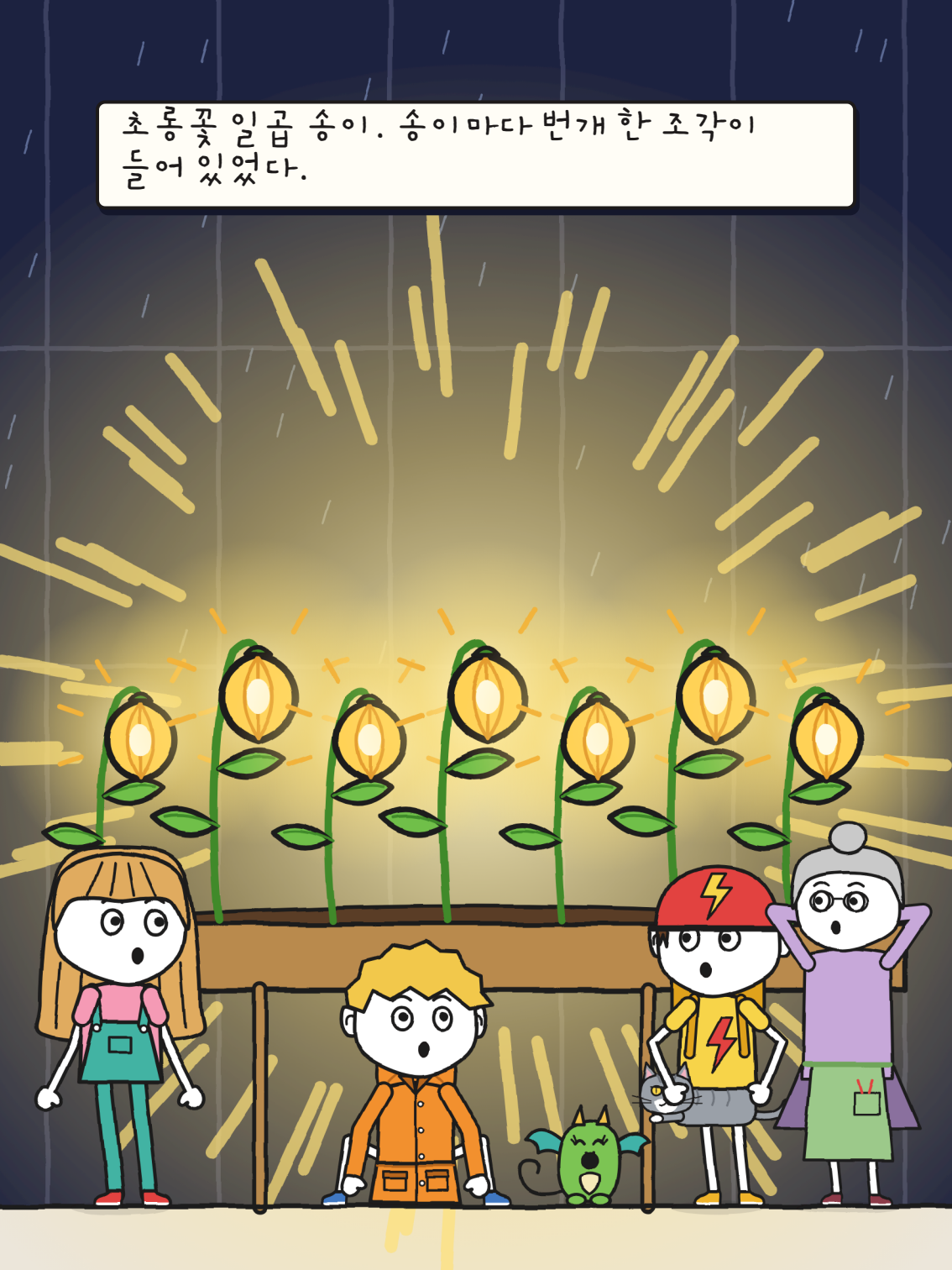



병은 비어 있었다. 흙에 작은 구멍이 일곱 개. 마지막 구멍에는 아직 작은 다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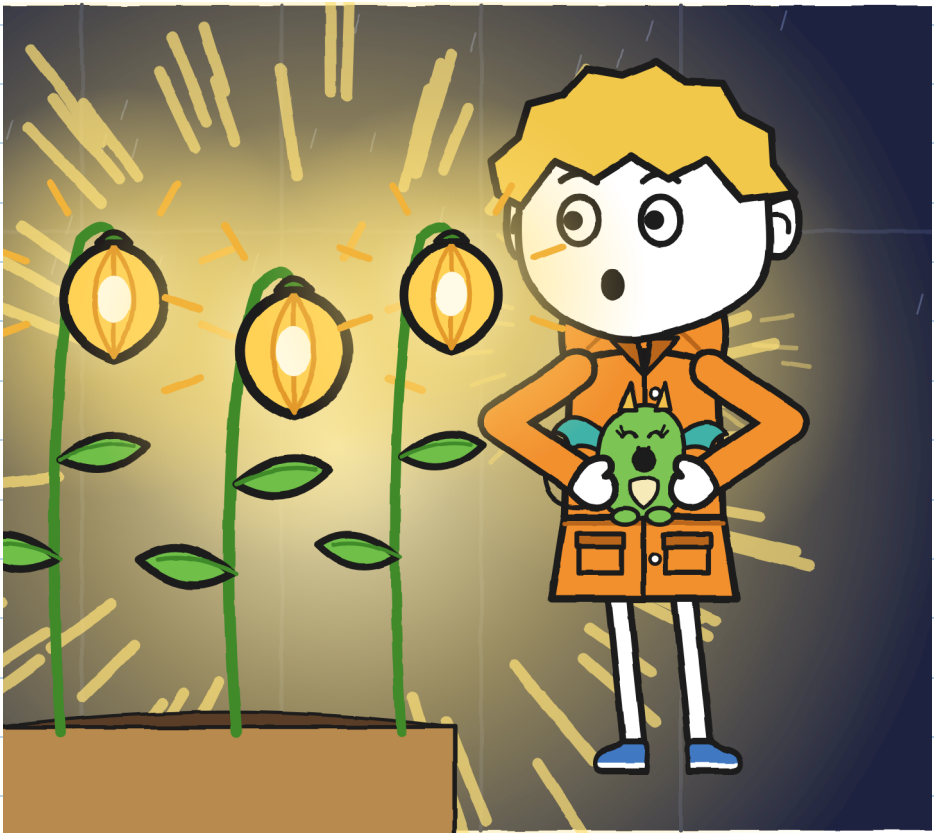
그러고는 한참 아무 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만 화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초롱꽃에 불이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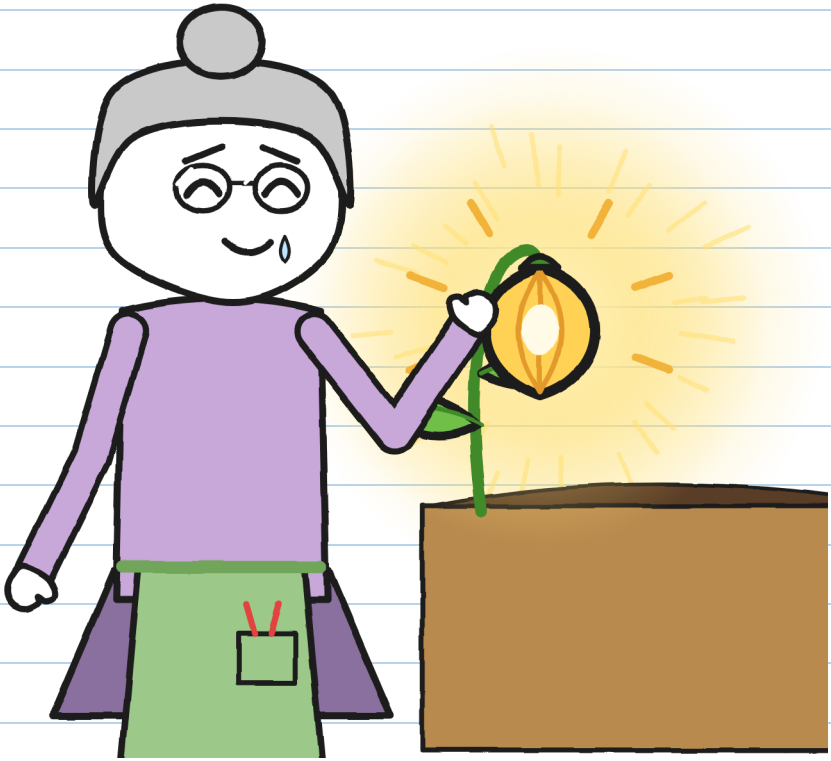
초롱꽃 일곱 송이. 송이마다 번개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부스러기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입을 떡 벌리고 초롱꽃을 바라보았다. 나처럼. 이제 내 무서움을 따라 하지 않았다. 이걸 따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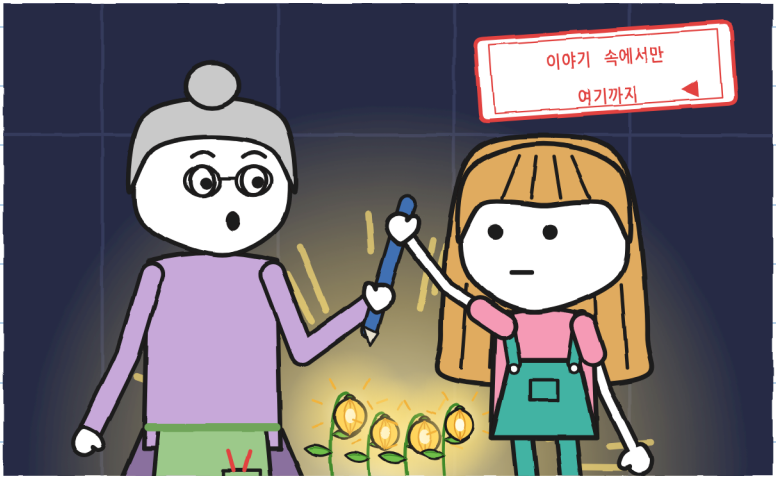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초롱꽃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다. 천천히. 오랫동안 기다린 것을 만지듯이.
"산책로가 이랬단다." 아줌마가 말했다.



나도 하나를 만져 보았다. 부스러기도. 햇볕을 쬔 돌멩이처럼 미지근하게 따뜻했다.

플로라 아줌마가 크랭크로 비를 멈췄다.
그러고는 볼펜을 꺼냈다.
드디어 서명하려는 참이었다.
휼리타가 손가락 두 개로 막았다.

"아직이에요."
휼리타는 초롱꽃 일곱 송이를 바라보았다.
"하나가 모자라요. 제가 병을 너무 일찍 열었어요.
찾아야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갔다. 상자에서 라벨을 떼어 냈다.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배달하려면 끝까지 해야 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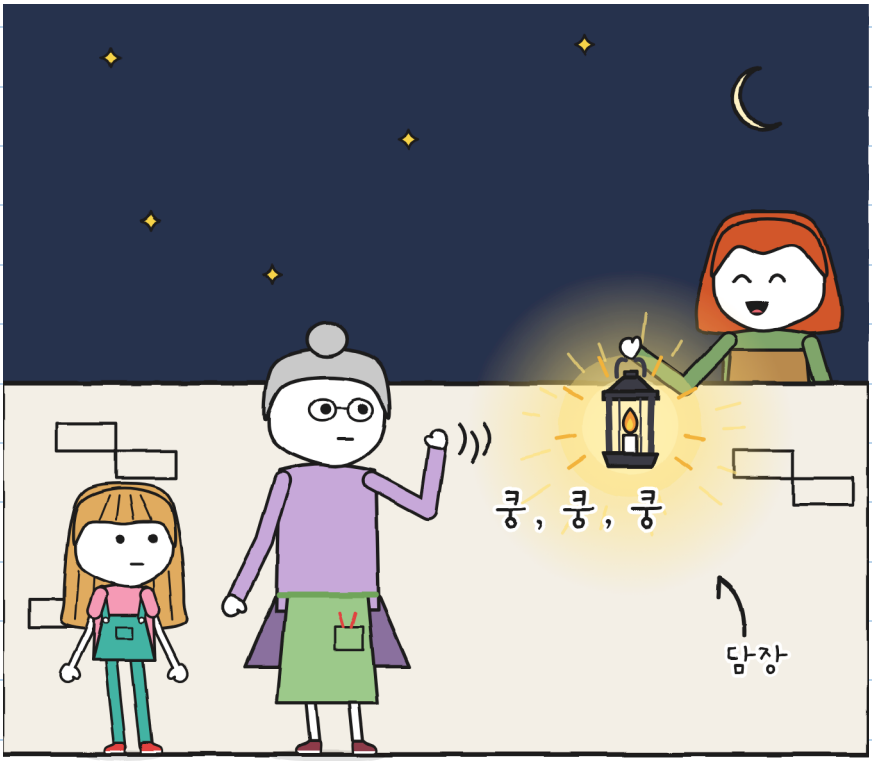
우리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마당은 아직 닫혀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아직은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기다렸다. 훌리타가 셀 번개가 더는 없었다.
그러고도 마지막 천둥이 친 뒤로 30분을 더 기다렸다.
이제 비는 오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갔다.



그런데 여덟 번째 씨앗은 저 밖에 있었다. 어딘가에,
어둠 속에. 제때 흙을 찾지 못하면 다시 잠든다.
돌멩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리고 서명이 없으면
해 뜰 때 2번 택배는 선반으로 돌아간다.

"찾으러 가요." 훌리타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마당 담장을 세 번 두드렸다. 베라 아줌마가 말했던 대로. 그 담장은 용의 집 벽이다.




"이번에는 너희끼리만 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가 말했다.

제6장

# 여덟 번째

우리는 플로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등불 하나, 자전거 한 대와 함께 나갔다. 훌리타는 빈 병과 라벨을 들었다. 나는 부스러기를 비옷 안에 넣었다. 머리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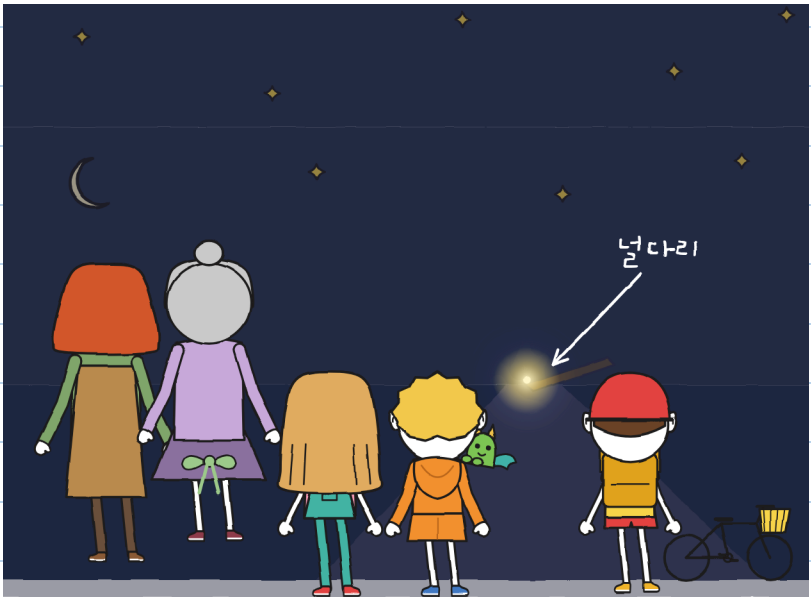
우리는 마당을 찾아보았다. 좁은 길도.
운하 가장자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여덟 번째 씨앗이 잠들었다면 저 돌멩이들 중
아무거나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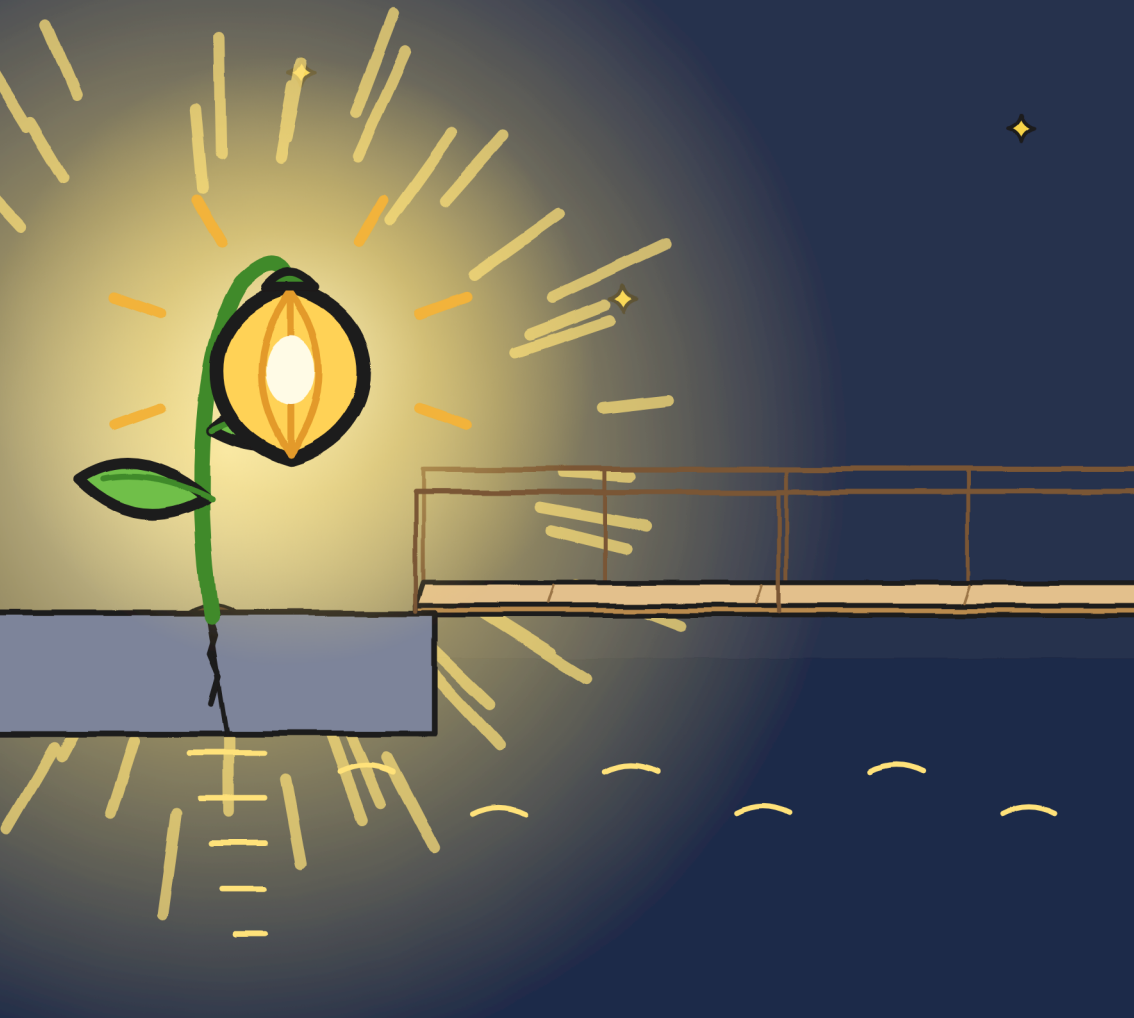
등불 빛이 젖은 돌 위에서 반짝였다.
그때 생각했다. 그렇게 작은 초롱꽃은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빛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불을 꺼요."
토뇨가 자전거를 세웠다. 베라 아줌마가 불꽃을 낮췄다.
플로라 아줌마가 손전등을 껐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산책로 끝에 작은 불빛이 있었다.




널다리 끝자락에.

내 생각에는 빗물이 씨앗을 좁은 길을 따라
산책로까지 쓸고 갔다. 씨앗은 돌 두 개 사이의
틈에 젖은 흙 조금과 함께 머물렀다. 널다리
끝자락에. 거기서 혼자 심어졌다. 멀리서는
작은 불빛. 가까이서는 모든 걸 환하게
비추었다.



훌리타는 한참 널다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있으니 달라 보였다. 더 짧고. 더 넓고. 그냥 나무판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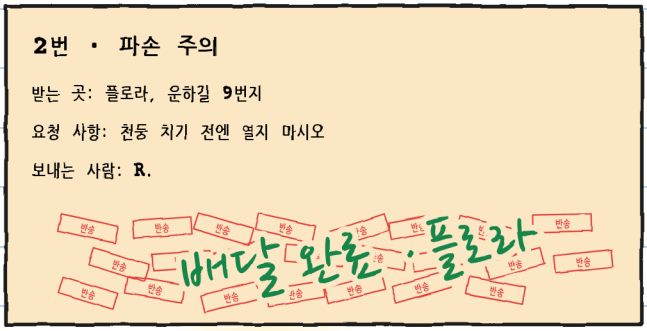
훌리타는 널다리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딱 한 발. 그러고는 다시 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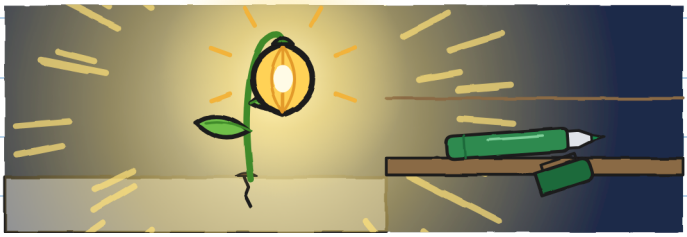


멀리서는 이제 안 무서워. 가까이서도 거의. —J.

"이건 여기 있게 하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자리를 스스로 골랐으니까."

훌리타는 라벨과 초록색 매직펜을 건넸다. 그 잉크는 지워지지 않는다. 플로라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여덟 번째 초롱꽃의 불빛 아래서 서명했다. 그리고 매직펜을 돌려주었다.



헤어질 때 플로라 아줌마가 나에게 체를 주었다.
"가져가렴. 다음 폭풍 때 쓰렴. 그리고 마라에게 이제 때가 됐다고 전해 주렴."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를 둥지에 두었다. 승합차로 우리를 가게까지 데려다주었다. 토뇨의 자전거는 뒤에 실었다. 찻길 다리로 갔다. 밤에는 큰 다리를 들어 올려 배가 지나가게 한다. 아줌마는 가게 앞에 우리를 내려 주고 용들에게 돌아갔다.

가게는 깜깜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에 없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 있었다.



"벌써 지나갔어?"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한참 전에요." 훌리타가 말했다.

담요. 귀마개. 헬멧 대신 쓴 냄비.
스물세 번 배달. 폭풍이 칠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이해가 됐다.

나는 플로라 아줌마의 말을 전했다. 마라 아줌마는
냄비를 눈썹까지 푹 눌러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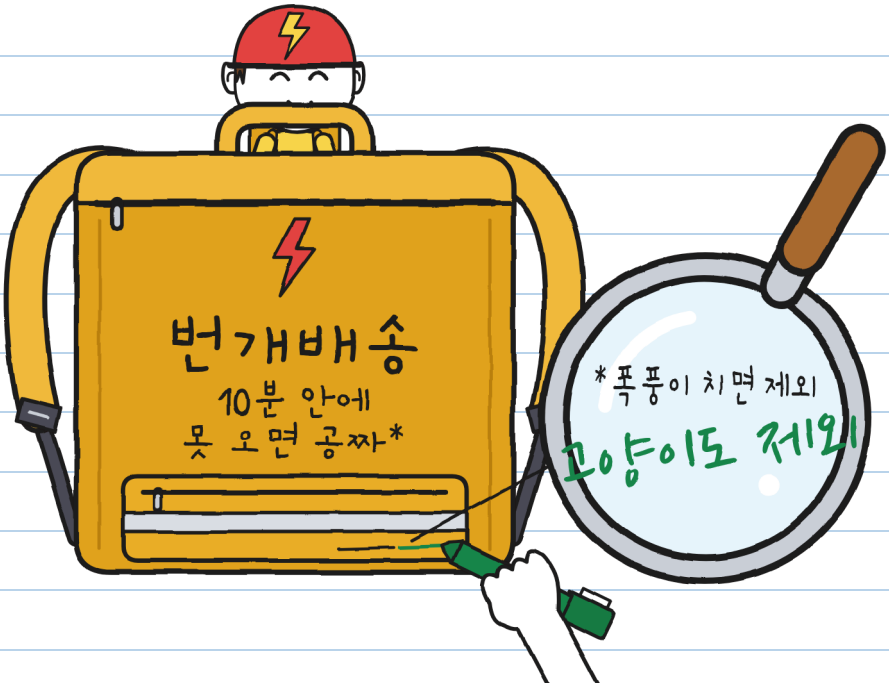
"저도 천둥이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담요를 들어 올렸다.



나는 마라 아줌마와 계산대 밑으로 들어갔다.
딱 맞았다.

마라아줌마는 토쇼에게 상자를 뒤집어 놓아 주었다.
의자들 옆에.
"네 자리야. 당분간은."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토쇼는 앉았다. 훌리타의 매직펜으로 가방에 두 단어를 더 적었다: '고양이도 제외'.




이제 작은 글씨가 진실을 말하네. —J.

내 계획을 고쳤다. 천둥에 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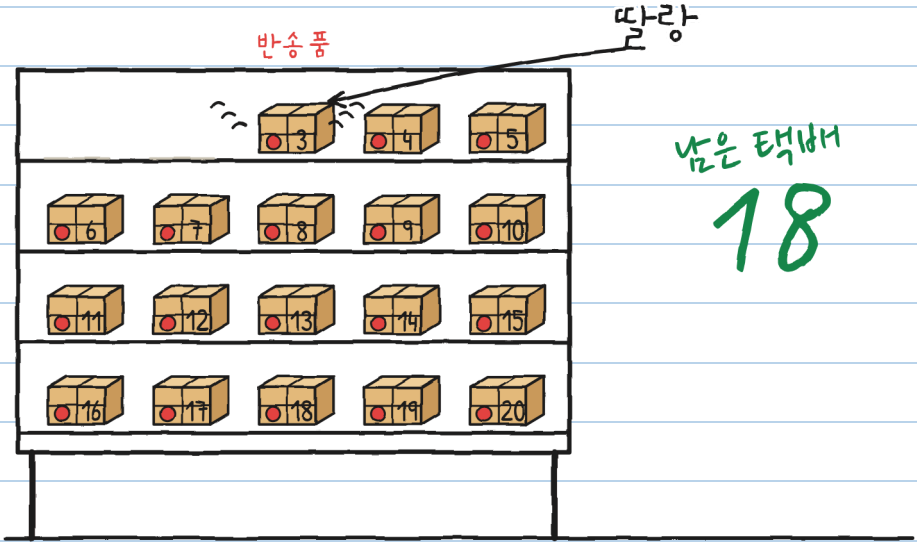
1. 코끼리 세기.
2. 누군가와 함께.
3. 딸꾹질을 해도 괜찮다.

## 남은 택배

## 7918



그리고 아무것의 사냥꾼이라고도 하지 마.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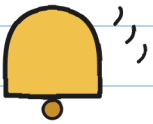



높은 택배
18

그날 밤 집에 가기 전에 돌아온 택배 하나가 딸랑 울렸다. 작은 방울처럼. 3번 택배였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3번**
>
> 우리 토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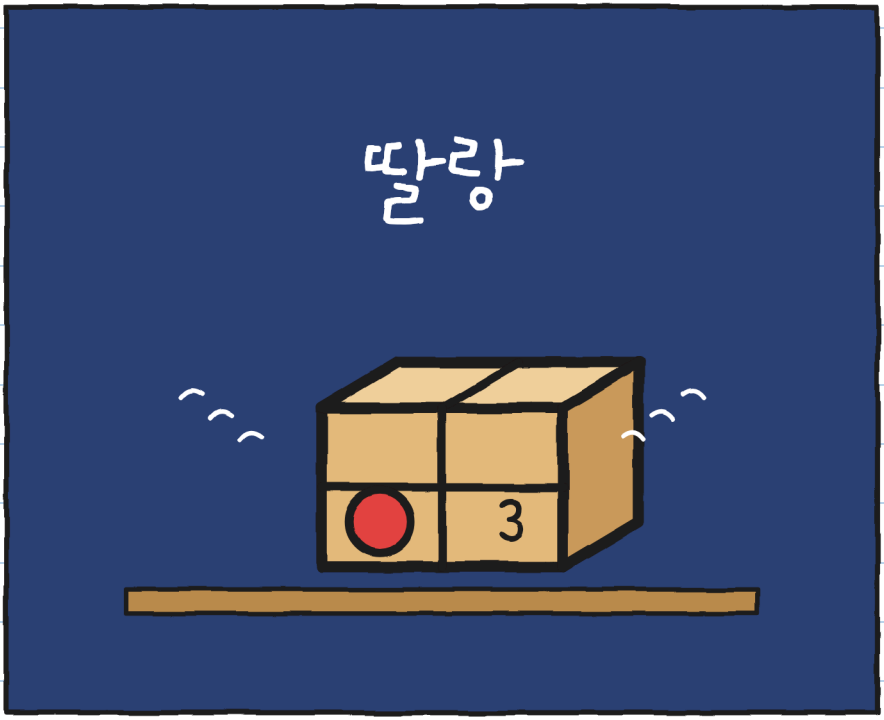


토뇨는 헬멧처럼 빨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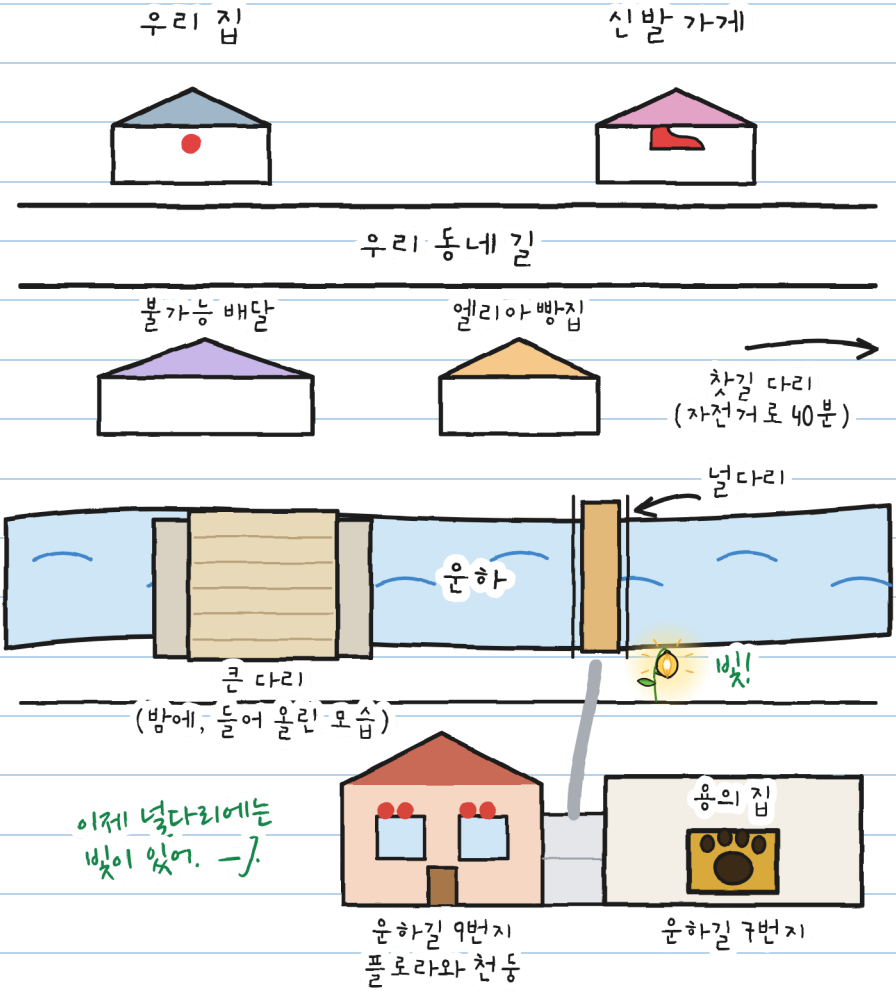
# 불가능 배달 · 3

(곧 나옵니다)




토노에게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 —J.

# 동네 (두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엘리아 빵집
찻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빛!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이제 널다리에는
빛이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나한테는 R.의 카드가 하나 있다. 1번과 2번 단서는 공책 1권에서 나온 것이다. 새 단서를 적었다:

**R.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R.

1. 글씨를 아주 못 쓴다(마라).
2. 베라 아줌마는 R.의 이니셜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다.
3. 오래전에 플로라 아줌마와 초롱꽃을 심었다.
4. 늦게라도 약속은 지킨다.
5. 플로라 아줌마의 마법 유리를 만들었다.

6.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단서야. —J.

너는 어떻게 생각해? R.이 누구일 것 같아?

내 생각에 R.은…

#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훌리타가 일곱 번째 씨앗을 잡아.

**사이즈 XS · A1**
바닥에 씨앗이 하나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S · A2**
또 번개가 쳤다. 바닥에는 씨앗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M · B1**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은 하나만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L · B2**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 진짜 폭풍이 칠 때 해야 할 일

1.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 번개가 벌써 너에게 닿을 수 있어.
2. 어른과 함께 집 안에 있어. 창문, 문, 유리에서 멀리 떨어져. 온실도, 다리도, 나무도, 물도 안돼.
3.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가지 마.
4. 코끼리를 세면 번개가 가까운 곳에 쳤는지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 하지만 언제 나가도 되는지는 알 수 없어.

### 네 폭풍을 세어 봐

집 안에서: 번개와 천둥 사이에 코끼리를 세어 봐.

| 번개 | 코끼리 | 킬로미터 (3마리에 1) | 더 가까울까, 더 멀까? |
|---|---|---|---|
| 1 | 15 | 5 | – |
| 2 | 9 | 3 | 더 가까이 |
| | | | |
| | | | |